

밀양 표충사삼층석탑(보물 제 467호) 출토 유물 보존처리

문화재관리국은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표충사 경내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삼층석탑(보물 제 467호)의 해체 보수 작업중('95.5.17~8.24) 탑내부에서 사리합과 불상 등 다수의 유물을 수습하였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는 출토된 유물 총 51점을 1995년 7월 21일부터 약 1년 7개월간 과학적인 보존처리를 실시하였다.

1. 유물의 출토 상태

석탑에서 출토된 유물은 불상 19점(여래입상 15점, 여래좌상 1점, 보살입상 3점)과 청동칠층소탑 1점, 유리구슬 5점, 인물상 1점 등 51점이며, 유물 표면은 흙과 부식녹 등으로 원형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었다.

2. 출토 유물의 처리과정

흙과 부식녹으로 고착된 유물은 표면의 도금 여부 확인을 위해 형광X선분석기로 비파괴 재질분석을 실시하여, 금과 수은의 아말감인 금동과 청동으로 유물을 분류하였다.

유물 표면의 흙과 부식녹은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제거하고, 도금 표출은 5% 개미산(Formic Acid)을 이용하여 표면의 부식물을 제거하였고, 부식물 제거후 1% 벤조트리아졸(Benzotriazole)을 이용 안정화처리를 실시한 후 청동유물의 표면을 마이크로크리스탈린 왁스로 보호 코팅하였다. 금동유물은 아크릴계 수지(상품명 : 10% Paraloid B72)로 표면을 보호 코팅하였다.

3. 고찰

보존처리 결과 19구의 불상은 금동여래입상 7구, 청동여래입상 8구, 금동여래좌상 1구, 금동보살입상 2구, 청동보살입상 1구로 재질이 확인되었다. 또한 청동칠층소탑(완파), 인물상 등 기타 유물도 보존처리 결과 본래의 제모습을 찾게 되었다.

드러난 불상 19점의 표현 양식을 살펴보면, 양쪽 어깨를 다 덮은 통견에

- ① 옷주름이 가슴에서 다리까지 큰 U자형을 이루고 있는 것
- ② 배 부분에서 다리까지 흘러내린 U자형 옷주름 표현과 가슴 부분이 벌어진 옷깃 사이로 내의가 보이는 것
- ③ 내의의 오른쪽 자락이 복부에서 한번 접혀 흘러내리고, 대퇴부 아래에서는 양쪽 다리를 따라 2개의 U자 모양을 이루며 흘러내린 것
- ④ 옷깃이 뒤로 넘어가 가슴 앞의 옷주름을 둥글게 표현하고, 좌우 대퇴부 이하의 옷주름이 U자형을 이루며 흘러내린 것

등 4가지 양식으로 구분된다.

또한 한 탑에서 19점이라는 다량의 불상이 시대별로 출토된 예는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로 향후 이에 대한 학술적인 추론이 기대된다.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금동여래좌상 1구를 제외하면, 모두 통일신라불상으로 풍만한 상호(相好:얼굴)와 불신(佛身), 유려하게 몸을 감싸며 흘러내린 옷주름 등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후반

까지 이르는 시대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통일신라 후기의 불상 편년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렇듯 다양한 양식의 불상이 한자리에서 다량 출토된 것은 불교 조각의 편년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은 물론 불교 미술사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는 바이다.



표충사 삼층석탑 전경



기단부 유물 노출 상태



금동여래입상 처리전 상태



처리후 상태



침동여래입상 처리전 상태



처리후 상태



금동여래좌상 처리전 상태



처리후 상태